

백제 문화로 살펴보는 한중일 불교역사

제60회 백제문화제...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60회 백제문화제에서 한·중·일 삼국문화교류전이 개최된다. 특히 불교문화 교류를 통해 삼국이 각국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소개될 예정이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7월 16일 제60회 백제문화제 기간 중 부여군과 공주시 행사장에서 각각 운영되는 '삼국문화교류전'과 '한·중·일 문화교류전' 내용을 공개했다. 제60회 백제문화제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주와 부여 일대에서 개최된다.

먼저 '삼국문화교류전'에는 백제·고구려·신라문화의 교류와 각국의 문화 건축 과정을 소개된다. 특히 불교문화 전래 이후 삼국사회의 변화를 상세히 전한다.

부여군 구드래행사에 열리는 전시전의 주요 행사는 △불교문화전래관(삼국 불교문화) △백제문화제 제60회 기념관 △삼국왕실로의 초대 △삼국전쟁관 △삼국고분관 △삼국생활문화전시관 △백제의 장인 △유산의 땅(전시 및 체험) △백제의 길 △사비의 꽃(3D영상) △프리즘 타워(삼국 대표 유물 입체영상 및 레이저쇼) △백제문화상품공모전 수상작 △백제장군 이야기(뮤지컬) 등이다.

'한·중·일 문화교류전'은 공주시 고마복합예술센터에 설치·운영되며, 백제를 중심으로 중국과 한반도, 일본영토를 잇는 고대 동아시아 문화교류 양상을 재조명한다. 여기서도 초기불교 전래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다.

전시내용은 한·중·일 역사연대기, 아시아광장(문화교류), 백제교류도시관(나라

뮤지컬, 전시체험 등 행사 풍성

국립 부여 및 공주 박물관 특별전

관, 오사카관, 규슈관, 난징관, 낙양관), 파사드(영상터널), 한·중·일 컬처아트마켓(전시·판매·체험), 한·중·일 대서사시(벽화 3D영상), 교류왕국백제, 한·중·일 풍류관, 한·중·일공예관, 백제역사유적지구관, 무령왕이야기(단막극 뮤지컬) 등이다.

이와 함께 국립부여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유물 실물을 전시하는 제60회 백제문화제 기념 특별전을 준비 중에 있다.



2012년 백제불교문화제 프로그램 중 마곡사에서 열린 불교종흥대회 장면. 이번 제60회 백제문화제에서는 백제불교의 전래와 삼국 불교문화교류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부여박물관은 '삼국문화교류전'과 연계 9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최하는 '고대의 문화교류, 백제의 먼나라 이웃나라'를 연다. 여기서는 백제와 주변국(고구려, 신라, 가야)의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312점의 유적·유물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시된다.

공주박물관은 9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제60회 백제문화제 기념 특별전시 한·중·일 문화교류전'을 개최해 무령왕릉 출토 석수(국보 제162호) 등 100여점과

국보급 유물인 중국 남경박물관 소장 '왕건지묘지(王建之墓誌)' 등 30점, 일본 미야지타케(宮地嶽古墳)고분 출토 동탁유개동합(銅托有蓋銅盂) 등 8점을 전시한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백제 문화의 우수성과 국제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백제문화제 60년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했다"며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문화·예술 접목한 전주 연꽃문화제



불교문화와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한 시민축제 자리잡고 있는 전주 연꽃문화제가 전주 덕진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7월 19~20일 양일간 전곡적인 연꽃 명사로 유명한 전주 덕진공원에서 개최된 '2014 전주연꽃문화제'는 연 향기 가득한 특설무대에서의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사)우리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성우, 금산사 주지)이 주최하고 전북 사암승가회가 후원한 연꽃문화제는 전주시를 위한 용왕제, 마술 및 클래식 공연, 젊은이들을 위한 밴드공연, 가수 박일준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또 가족시민들을 대상으로한 OX 퀴즈, 즉석 노래자랑, 연꽃 시민 노래자랑, 희망찬 전주를 위한 합창등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 덕진공원 일대에서는 연꽃 만들기 체험, 전통 부채만들기, 목탁 치기 체험, 다도체험 등 불교문화와 다양한 우리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과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 김성주 민주당국회의원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해 연꽃문화제개막을 축하했다.

월주 스님(금산사 조실)은 개막식에서 "연꽃 축제는 전주의 자랑인 덕진 공원 연꽃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전북 도민과 전주 시민을 위한 문화제이다"며 "전주시민들의 행사를 넘어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제39기 합동득도수계산림 입재식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이 지난 7월 21일 순천 선암사 제39기 합동득도수계산림 입재식을 열고 42명의 스님들 배출했다. 이번에 태고종으로 출가한 스님들은 10월 20일까지 선암사 정수원에서 사미물의, 부처님 일대기, 초심, 발심수행장, 자경문, 불교기초교리, 열불승의, 특강(선암사, 총무원), 선암사 연혁 및 조사스님, 승의 등의 기초교육을 받는다.

이날 행사입재식은 전체 42명(남자 32명, 여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수원 현판식, 일정보고, 승의사 소개, 죽비전달, 행사선서, 사홍서원 등이 진행됐다.

도산 스님은 격려사에서 "선암사와 같은 한국불교의 뜻 깊은 도량에서 대중살림을 함께하며, 출가사문으로서 그 덕과

행을 닦는 기초를 배우고 위의를 익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출가정신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3개월의 교육과정을 통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수원장을 맡은 설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교육과정 이후 태고종 스님으로서 종단발전엔 원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달라"며 "충실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은 지난 3월 제113회 총회에서 행사 기초교육기관 '정수원'을 선암사(주지 설운)에 설치하는 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행사기초교육기관인 정수원 설치하고 3개월 행사교육을 의무화 했다. 행사교육 이후 동방대, 선암사 강원 사지과정 등 중단 공식인증 교육기관에 참가할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청소년 프로그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가 여름을 맞아 다양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7월 25~27일 지리산 일대에서 '제3회 청소년 지리산마음캠프'를 개최한다.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섬진강, 산청 법계사, 지리산 천왕봉, 남원 실상사 일대에서 2박 3일 일정이 이어진다. 캠프에서는 청소년들이 함께 지리산을 걸으며, 이야기 나누고, 자신의

마음자리도 살피는 시간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8월 1~3일에는 고창 선운사와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제15회 어린이 여름생태학교'가 열린다. 환경부, 광주광역시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선운사 에코트레킹, 습지체험, 공동체 놀이, 건강한 먹거리 체험, 경제야 놀자, 환경 영화상영, 108배 절 명상 프로그램인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포장아트 지도사 과정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이 리본&포장아트 지도사 과정을 개설했다. 지역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리본&포장아트 지도사 과정은 다양한 리본 접기와 선물포장 기초 및 응용교육을 배우는 강좌로 전문기능인으로서 직업을 개발할 수 있는 자격증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40세 이하의 주부를 대상으로 매주 월, 화요일 2회,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민간단체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

7월 21일 고창 종합복지관 단풍실에서 진행된 개강식에서 대원 스님은 "젊은 여성이 능여촌에 정착하기 위해선 여성이 참여하는 일자리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



리본&포장아트 지도사 과정 강의 장면

다"며 "앞으로 지역 여성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과정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이번 기회에 평소 배우고 싶은 교육에 참여해 기쁘다"며 "자격증 취득 후에는 어린이집 아동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남지역 세월호 희생자 추모법회

호남지역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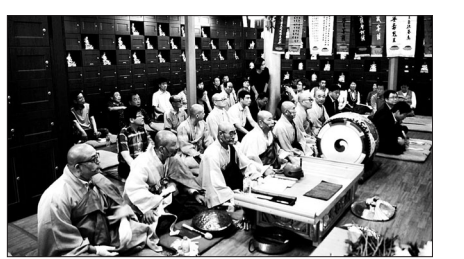
전주 정음사원(주지 보광)은 7월 20일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추모위령재를 봉행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봉행된 이날 추모법회는 지역의 스님들과 김승환 전북 교육감 등 각급 기관장들이 동참했다.

법사로 나선 행선 스님은 "세월호 사건과 같은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깊이 사유하고 참회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전북불교회관 실버음성공양원의 추모 공연과 영상작법이 봉행됐다.

이와 함께 대한불교선각종 운천사(총무원장 정암)는 7월 23일 진도 남도석성방파제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0일 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정암 스님, 총회회장 원정 스님, 전남교구총무원장 진철 스님, 광주교구총무원장 진승 스님, 선각불교대학 학인 스님 등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위령재를 봉행하는 선각불교대학 학인스님들(사진 위)과 정음사원에서 열린 합동추모위령제(사진 아래)

200여 명이 참여했다.

정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린 아이들을 보낸 부모의 마음은 100일 아닌 100년의 슬픔을 더한 것보다 클 것"이라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가족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자"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조동제 전북지사장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마음꽃>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친구가 내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다. 하지만 '호재지 않고 말하게 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친구에게 차분히 물어보았더니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다. 화를 내지 않아서 다행이다. 앞으로 또 이렇게 해야지.

김상현 (초5)

마음꽃

피어라,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청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청기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 사철이나 학교·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공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중